

코캠, 2차전지 논산공장 150% 증설

전기자동차용 중심으로 호조 예상 ... 2010년 매출목표 1000억원 기대

전지 생산기업 코캠(대표 황인범)은 2차전지 수요증가 및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2010년 관련매출이 1000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캠은 2010년 전기자동차(EV)용 전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매출액이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캠은 2009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의 활성화와 2차전지 기술 라이선스 수출 증가로 5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0년 매출은 77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용 전지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 1000억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캠은 충청남도 논산 소재 생산라인을 150% 증설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부문의 ESS(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사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차전지 완제품 양산과 함께 기술 라이선스도 수출해 Dow Chemical과 공동 설립한 다우코캠을 통해 미국 Michigan의 Midland에 연평균 6만대 분량의 자동차용 2차전지 생산시설을 독점 건설하고 있다.

황인범 코캠 대표는 “글로벌 기업들은 2009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의 총용량 규모가 1.79GWh에 불과하지만 2015년에는 차량 189만대 분량에 해당하는 37.8GWh로 증가할 것”이라며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2차전지 시장에서 관련기술 수출 등을 통해 매출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08>